

15. 인문대학

전화: 062) 530-3105 ~ 8 홈페이지: <http://human.jnu.ac.kr>

1. 대학 개요

가. 연혁

- 1952. 01. 01. 국립 전남대학교 발족.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문학부-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정치학과, 법학과), (이학부-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로 개편 이관
- 1954. 04. 01. 문리과대학 법학과를 법과대학으로 이관
- 1955. 12. 25. 문학부 강의동(1호관) 준공
- 1957. 07. 20. 문리과대학 이학부 준공
- 1958. 04. 01.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신설
- 1963. 07. 12. 어학연구소 설치
- 1963. 07. 17. 호남문화연구소 설치
- 1964. 12. 15. 미국문화연구소 설치
- 1969. 12. 27. 교양과정부 신설
- 1970. 04. 10. 호남문화연구소, 한국사회개발연구소를 지역개발연구소로 통합
- 1971. 02. 01. 인문과학연구소 설치
- 1971. 12. 31. 문리과대학 이학부 수학과 폐지
- 1973. 11. 20. 실험대학(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추가 인가
- 1973. 12. 31. 문리과대학 수학과 신설
- 1975. 01. 15. 능력별 졸업제도 인가 (문리과대학)
- 1975. 12. 30.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신설
- 1977. 12. 31.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심리학과, 의상학과, 계산통계학과 신설
- 1978. 10. 07. 문리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지질학과, 식품영양학과, 치의예과 신설
- 1979. 07. 21. 문리과대학 호남문화연구소, 화학연구소 설치
- 1979. 11. 01. 인문사회과학대학 연구동(2호관) 준공
- 1979. 11. 12. 문리과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국문학과, 영문학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중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도서관학과)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 개편
- 1979. 11. 12. 인문사회과학대학에 도서관학과 신설
- 1980. 03. 01. 교양과정부 폐지
- 1980. 10. 02.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신문방송학과, 지리학과, 일어일문학과, 산업미술학과 신설

- 1981. 10. 20. 인문사회과학대학 산업미술학과를 예술대학 미술학과로 개편
- 1984. 10. 05. 인문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개편
- 1987. 03. 01.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과학대학(국문학과, 영문학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중문학과, 일문학과, 사학과, 철학과)과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
- 1991. 09. 01. 유럽지역학연구소 설치
- 1995. 03. 01.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를 인문과학대학 독일언어문학과(독어독문학전공, 독어교수법전공)로 통합 개편
- 1995. 03. 23. 인문과학대학 신관(3호관) 준공
- 1996. 02. 26. 어학연구소를 언어교육원으로 개편
- 2000. 03. 01.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신설
- 2001. 07. 23.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와 인문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체결
- 2001. 09. 01. 단과대학(원) 15개 행정실을 8개로 조정 [제1행정실(경영대학, 인문과학대학, 경영대학원)]
- 2001. 09. 01. 철학연구교육센터 설립
- 2002. 03. 01. 인문과학대학을 인문대학으로 명칭 변경
- 2002. 03. 05. 인문학연구원 설치
- 2002. 11. 30. 미국문화연구소를 영미문화연구소로 개칭
- 2003. 03. 02. 인문과학연구소와 인문학연구원을 인문학연구소로 통합
- 2003. 09. 01. 한국어문학연구소 설치
- 2003. 09. 16. 인문대학 인문과학부 폐지
- 2004. 05. 21. 일본문화연구센터 설치
- 2004. 09. 01. 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 2004. 09. 04. 인문대학 1호관 등록문화재 96호 지정
- 2006. 01. 13. 인문대학 1호관 보수 개관(改館)
- 2006. 06. 01.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와 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로 통합
- 2008. 05. 01.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설치
- 2008. 12. 15. 유라시아연구소 설치
- 2010. 03. 01. 아시아문화연구소 설치
- 2011. 12. 19.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운영규정 제정
- 2012. 03. 01.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개설
- 2016. 06. 17.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선정
- 2016. 12. 20.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 설치
- 2017. 08. 01. 인문학연구원 설치
- 2019. 05. 03.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기념홀 개관

나. 교육 목표

인간 삶의 본질과 그 가치를 궁구하는 인문학은 오랫동안 인류 공영의 길을 밝혀 왔으며, 모든 학문 영역에 질서와 가치규범을 제공하여 왔다. 따라서 인문학은 세계와 지역, 언어와 문화, 사상과 역사를 연구하는 순수과학으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통섭 학문으로서의 교양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가 비록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풍요에 기대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인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찰력과 창조력을 열어준 인문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인문학적 전통을 토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문학적 지평을 탐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인문대학 본연의 책무이다. 이에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두터운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미래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역과 세계, 민족과 인류를 관통하는 국제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선도할 창조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은 현재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철학과의 8개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중 6개 어문학과는 각기 해당 언어와 문학을, 사학과는 동서의 역사를, 철학과는 동서의 철학을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교수한다. 이를 통해,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세계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화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문학 관련 연구소로는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소, 영미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센터, 일본문화연구센터, 유라시아연구소, 유럽지역학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소, 철학연구교육센터, 한국어문학연구소, 호남학연구원, 호남 불교문화연구소, 중국인문연구소 등이 있다.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 분야는 대학교직, 연구소 연구직, 중등교원, 언론·출판사, 기업·금융, 공무원, 외국 주재 상사 등으로 진출하며, 문화 콘텐츠 개발, 문학작품 창작 및 평론활동 등 다양하고도 그 폭이 넓다.

다. 보직자 현황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학	장	교	수	이 성 원	
부	학 장	부	교 수	이 준 환	
국 어 국 문 학 과	장	교	수	조 재 형	
영 어 영 문 학 과	장	부	교 수	김 성 훈	
독 일 언 어 문 학 과	장	교	수	정 명 순	
불 어 불 문 학 과	장	부	교 수	이 수 원	
중 어 중 문 학 과	장	부	교 수	문 유 미	
일 어 일 문 학 과	장	교	수	김 정 례	
사 학 과	장	교	수	송 한 용	
철 학 과	장	교	수	김 상 봉	
행 정 실	장	행 정 사 무 관		서 명 원	

라. 교직원 현황

구 분	교 원				직 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일반직	대학회계직	환경관리원	
인 원	49	12	8	9	4	2	5	89

마. 학부(과), 계열별 입학정원

학부(과) 명	국어국문 학 과	영어영문 학 과	독일언어 문 학 과	불어불 문학과	중어중 문학과	일어일 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계
입학정원	46	42	35	36	43	40	29	30	301

2. 학부(과)별 개요

국어국문학과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전화 : 062) 530-3130

홈페이지 : <http://korean.jnu.ac.kr>

가. 학과 소개

국어국문학과는 국어학과 국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분야는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편성되며, 다시 국어학에서는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방언론, 한국어교육학, 사회언어학 등을, 고전문학에서는 고전시가, 고전산문, 한국한문학, 구비문학 등을, 현대문학에서는 시, 소설, 희곡, 비평이론 등을 연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공 영역에 따른 연구 및 교육과 더불어 국어국문학과는 우리 모국어의 사용 기능을 높이고, 정서 함양을 도모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의 고유한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정규교과과정 이외에도 학생들이 스스로의 관심사에 따라 연구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고전문학연구회, 시창작연구회, 소설창작연구회, 극문화연구회, 비평연구회, 우리말연구회라는 6개 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이러한 연구회 활동은 취미 생활이 됨은 물론 오랜 전통 속에서 일궈온 선·후배들의 유대 관계를 통해 졸업 후의 진로모색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가계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복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의 종류는 다양하며, 주요 장학금으로는 등록금재원(감면) 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특수(지정 기부금)장학금, 근로장학금(대학생), BK21 FOUR 장학금(대학원생) 등이 있다. 장학생 선발 및 추천은 학업성적 및 장학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국어국문학과만큼 졸업생의 진로가 다양한 학과도 없다. 이것은 국어국문학과 졸업생들이 글쓰기나 말하기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언어적 의사 표현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스스로의 생각을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조직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많은 동문들은 언론계(PD, 기자, 방송 및 시나리오 작가), 학계(대학교수, 언어 관련 연구원), 교육계(중·고등학교 교사), 출판계(편집기획자), 공무원, 기업체(홍보부서), 문학계(시인·소설가·평론가)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 명	전 공 분 야	성 명	전 공 분 야
김 신 중	고전문학(고전시가)	조 경 순	국어학(의미론)
임 환 모	현대문학(현대문학비평)	이 준 환	국어학(음운론)

성 명	전 공 분 야	성 명	전 공 분 야
김 대 현	고전문학(한국한문학)	한 정 훈	한국어문학과문화(융합어문학)
신 해 진	고전문학(고전산문)	최 준	국어학(한국어정보학)
백 현 미	현대문학(한국근현대연극사)		
장 일 구	현대문학(현대소설론)		
조 재 형	국어학(중세국어)		
백 승 주	국어학(한국어교육학)		

가. 학과 소개

본 학과는 재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해력을 바탕으로 영미 문학의 전통 및 사조를 이해하고 영미작가들의 작품을 이해, 분석, 비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언어학 분야에서는 언어 일반 이론에서부터 최신 언어이론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교육한다.

영문학에서 학습되는 내용은 국가적 구분에 의해 영국 문학과 미국 문학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장르별로 시, 소설, 희곡, 비평이론 등의 강좌로 나누어진다. 또한 시대적 구분에 의해 영국문학은 중세,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근대 및 현대 영문학으로 세분되고, 미국문학의 경우는 식민시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과 후반, 근대와 현대 미국문학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주제에 따라 영문학의 사상적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고전 강좌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배경에 대한 강좌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강좌나 미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강좌 등이 있다. 또한 탈근대적 경향으로 대두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영문학의 다문화적 경향을 다루는 영연방의 문학 그리고 문학을 통한 범문화적 현상, 혹은 문화적 현상에 내재된 문학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영문학과 영상예술 등에 대한 강좌가 개설된다.

영어학은 크게 이론언어학(Theoretical Linguistics)과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으로 나누어진다. 이론언어학은 언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순수 언어학(Pure Linguistics)이라 불리며 제2언어습득론 영어교수법 등 응용언어학은 이론언어학의 이론과 성과를 실용적으로 응용하면서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어 음성학,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형태론 등이 있다.

졸업생은 대학교수, 공무원, 기업체, 언론계, 외무부, 방송사, 외국상사 및 중등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명	전 공 분 야	성명	전 공 분 야
민 태 운	영국소설	김 연 민	영국시, 아일랜드 문학
노 승 희	셰익스피어	이 주 리	최근영문학
오 미 라	영어음운론	김 성 훈	현대미국문학과 문화
나 윤 희	영어교육	강 의 혁	폭력연구, 평화학
백 승 현	제2언어습득론	Scott Allan Findlay	영어교육
신 근 영	의미론		

가. 학과 소개

독일은 주변의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함께 독일어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한 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통일로 인해 세계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관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예로부터 철학자와 시인의 나라인 독일은 Goethe, Heine, Kafka를 위시한 많은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 지고 있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독일어의 해석 능력을 기초하여 독일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며 나아가서 독일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 분석 및 비평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생들은 교사, 교수, 번역사, 통역사 등의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방송국,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 출판계, 문화계 그리고 국제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금융회사, 무역회사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한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독일어권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독일언어문학과는 전문성과 실용성이 높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각종 외국어 학습 기자재 및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독일어 구사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1학년 과정에서는 독일어 언어능력과 독일에 대한 입문과 개론을 통하여 전공을 탐색하고, 2학년부턴 독어독문학 전공과 독일지역학 전공으로 나뉘서 독일어권 지역 사정에 능통한 전문인을 육성하고 있다.

독어독문학 전공 분야에서는 독일문화와 독일 사회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일 및 독일어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킨다. 또한 독일 문학을 통해 인간과 삶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독일지역학전공에서는 실무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생한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명	전공분야	성명	전공분야
조자경	독어학	최정애	독일지역학
정명순	독문학	전유정	독문학
최동민	독문학	시린	독어교육학

가. 학과 소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에서 그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는 프랑스는 예술, 문화, 교육 그리고 첨단기술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주도적인 국가로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프랑스어는 프랑스 외에도 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지역), 벨기에, 캐나다 퀘벡 지방, 그리고 스위스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올림픽 공식 언어이자 많은 국제기구의 공용어로서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어다. 이러한 프랑스의 학문과 예술,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국제적, 전문적 인재양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우리의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질과 안목을 함양하게 된다.

불어불문학과는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와 사범대학 불어교육과가 통합되어 이루어졌고, 2학년 부터는 불어불문학 전공과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으로 분리되어 좀 더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에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불어불문학 전공분야에서는 프랑스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 프랑스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과 비평 능력을 함양한다. 프랑스 문화·지역학 전공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권을 유럽·북미권 및 아프리카권역으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프랑스어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교수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1,2학년들을 위해 초·중급 단계의 프랑스어를 학습하고 프랑스 문학 및 어학 그리고 프랑스 문화 전반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3,4학년 과정에서는 기초 단계를 넘어서 학생들이 프랑스 문학, 프랑스 어학에 대한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 높은 실용 프랑스어 구사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 강의들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됨으로써 프랑스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불어불문학과의 졸업생은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 방송사/광고회사 PD, 시인, 소설가, 문학 평론가, 출판사, 기자, 특파원, 공무원, 은행 등 금융회사, 여행사, 항공승무원, 국내외 기업체, 교사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 명	전 공 분 야	성 명	전 공 분 야
최 민	프랑스문학(시)	민 진 영	프랑스지역학
류 재 한	프랑스문학(소설)	이 수 원	프랑스지역학
임 채 광	프랑스문학(희곡)	문 성 욱	프랑스문학(시)
하 영 동	프랑스어학(사전학)	Lionel BREUGNON	프랑스어회화
김 태 훈	프랑스문화		

가. 학과 소개

외국어학습은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 밖, 또 다른 세계와 만나기 위한 의미 있는 탐구과정이다. 이러한 도전은 자신의 삶의 시공간을 몇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직접적 통로의 개척인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은 우리나라와 예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최근 개방개혁 정책에 따라 양국은 한층 다양한 교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은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경쟁 상대이자 협조 상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적 상황 때문에 중국어, 중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갈수록 요청되며, 우리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한다. 우선 현대중국어(漢語)를 기초회화, 생활회화, 중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실용 중국어 과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아울러 현대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영상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학습도 단계적으로 병행된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차츰 중국어의 음성 및 음운학, 문자학, 고대·현대어법학, 문화언어 등 언어학 전반과 중국 시, 산문, 희곡, 수필, 소설, 문학이론, 문학비평 등 문학 전반에 관한 과목을 차례로 학습한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과정의 최종 목표는 중국 언어와 문학, 문화의 심층적 이해,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있는 것이다.

졸업 후 개인적 능력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로, 중국 대륙 및 대만을 상대로 직접 무역을 하거나 해당 기업 등에 취직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개 현지 파견 근무가 이루어진다. 중국어 번역가 등 프리랜서로 활약할 수도 있고, 항공사 및 관광통역가이드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도 있다. 학문에 관심 있는 경우, 중국 대륙 및 대만 유학을 포함해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여 교수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하여 중등학교 교사로 진출할 수도 있다. 참고로, 본 학과 대학원 졸업 후 본교 및 타대학의 교수로 배출되어, 다수의 인력이 강의 활동 중이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 명	전 공 분 야	성 명	전 공 분 야
양 회 석	중국문학(중국희곡)	장 춘 석	중국문학(중국돈황문학)
오 만 종	중국문학(중국고전시가)	Xu Bao Yu	중국문학(중국고전시가)
김 태 완	중국어학(중국어음운론 및 문자학)	문 유 미	중국어학(현대중국어문법)
이 주 노	중국문학(중국현대소설)	이 희 경	중국문화학(중국현대문학)

다. 기타 특이사항

중문대사전, 중국문학대사전, 二十五史, 한문대계, 중국문학명저선집 등 기본 공구서와 200종이 넘는 중국관련 영상자료를 자료실에 구비하고 있다. 전공 서적 가운데 특히 중국어학 분야 자료를 풍부히 갖추고 있다. 중국의 최고 명문 복단대학(復旦大學), 중산대학(中山大學), 길림대학(吉林大學),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 등 10여개 대학과 학교 및 학과 간 교류를 하고 있으며, 매년 40여명의 교환 학생이 파견되어 현지에서 직접 수학하고 있다.

가. 학과 소개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의 어문학 및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 일어일문학과에서는 날로 변모하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심도 있는 연구 성과임을 감안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어문학 중심으로 참신한 강의 진행과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수하여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배양한다.

둘째,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으로 어문학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지리·풍습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한일 양국 간의 제 분야 교류 시 주체성을 지니고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일어일문학과는 일어일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교육, 이를 통한 언어 기능 개발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이다. 일어일문학과는 일본학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공 분야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로 편성하여 전문적인 연구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일본어학에서는 일본어회화 및 작문, 일본어독해, 일본어구어문법, 일본어 청취연습, 일본한자연습, 일본어문어문법, 실무일본어, 일본정치에 이해, 일본의 지리, 일본어학 개론, 일본어사, 일본비즈니스실무, 일본경제의 이해, 한일통번역입문, 일본사회언어학 등을, 일본문학에서는 일본문학입문, 일본문학개론, 일본근대문학, 일본고전문학사, 일본현대시, 일본현대문학사, 일본고전시가의 이해, 일본고전산문의 이해, 일본문학비평, 일본여성문학, 일본수필, 일본소설, 일본의 공연예술 등을, 일본문화에서는 일본대중문화, 일본생활문화, 일본 종교문화, 일본영상문화, 일본역사문화 등의 이론을 연마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전공영역의 연구 교육과 더불어 외국어 기능을 높이고, 정서 함양을 도모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제 분야 교류 시 주체성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식인을 배출한다. 이에 사회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에게 실습을 통해 현장의 실무 경험을 겸비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양성·배출하고자 실습과목으로 글로벌시대경제현장 실습과 글로벌시대경영현장실습이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배출된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교육, 언론, 금융, 무역, 관광, 번역, 통역 등)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 명	전 공 분 야	성 명	전 공 분 야
김 정 례	일본문학	정 승 운	일본문학
김 용 의	일본문화	김 성 은	일본문화
김 대 성	일본어학	임 지 영	일본어학
이이다 사오리	한국어학	문 현 일	일본어학

가. 학과 소개

사학과는 역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이다. 역사학은 문헌과 유물 등 남겨진 모든 자료를 통해 과거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등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영역이 역사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종합학문이다. 사학과는 인류역사를 편의상 한국사·동양사·서양사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시대와 주제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교양을 함양시키고 있다. 또한 각 영역 간 비교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적이면서도 폭넓은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각 분야 연구에 필요한 해당 외국어 학습을 권장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조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역사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중등학교의 교사, 공무원(국사편찬위원회 편수관, 박물관 학예직 공무원 등), 언론인, 드라마·방송 작가, 문화콘텐츠 및 지역축제 기획자 등 여러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심화된 역사 연구를 수행하여 교수, 역사학자, 역사 관련 유관단체의 연구원 등이 될 수 있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 명	진 공 분 야	성 명	진 공 분 야
김 봉 중	서양사(미국사)	임 종 명	한국사(현대사)
윤 선 자	한국사(근/현대사)	이 성 원	동양사(중국고대사)
최 혜 영	서양사(그리스/로마사)	강 은 영	동양사(일본고대사)
송 한 용	동양사(중국현대사)	설 배 환	동양사(몽골제국사)
박 상 철	서양사(러시아사)	김 창 수	한국사(조선시대사)

가. 학과 소개

철학은 기초 학문이다. 철학은 법학, 의학, 경제학, 예술 등을 포함한 모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토대이면서, 서로 다른 학문들이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담론의 장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철학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 사회, 문화, 그리고 세계의 본질을 전체적 연관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교양의 상징적 기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철학과에서는 동서양의 전통적 사상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철학과 삶, 윤리적 사유와 공동체, 논리학, 생명윤리, 인간과 가치, 동양사상과 현대의 만남, 그리스신화와철학 같은 과목들은 좋은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교양을 제공한다.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공맹철학, 노장철학 같은 전공과목은 기초적이고 고전적인 철학적 관점들을 정립하도록 돕는다. 언어철학, 문화철학, 사회철학, 역사철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등은 다른 학문 분야의 철학적 토대를 확립하도록 돕는다. 그 밖에도 동서양 철학사상사와 관련된 교과목과 각 지역의 독특한 철학을 소개하는 교과목을 제공한다.

철학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전공과 직업의 범주가 거미줄처럼 미세하게 엉켜 있는 지식기반 사회,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치관들이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철학은 남의 글과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나아가 보다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이론과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맥락 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철학을 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선택하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철학과 졸업생에게는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다.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를 비롯하여 일반 기업체들도 종합적 판단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철학 전공자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철학과 졸업생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교수나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재교육 담당자, 철학적 경영 카운슬링,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독서 및 논술 지도자, 교육콘텐츠 제작자, 인성 개발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언론 분야에서는 기자, PD, 영화 및 방송 제작자, 광고 기획자, 저널리스트, 문화 관련 구성 작가, 사회비평가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제파악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요청하는 행정 및 경영 분야에서는 국제회의 기획 운영자, 컨설턴트, 기업 관리자, 마케팅 기획자, 정책 수립자, 그리고 다양한 직책의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있다. 기타 법조인, 게임 시나리오 작가, 영업직, 종교인, 출판인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성실한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철학과는 자신의 꿈과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나. 학과 교수명단

성 명	전 공 분 야	성 명	전 공 분 야
이 강 서	서양고대철학	정 미 라	독일관념론, 사회철학
김 양 현	서양근세철학·실천철학	Kim Su Rasmussen	개념사·프랑스철학
조 윤 호	불교철학(중국)	양 순 자	중국고대철학
박 구 용	실천철학(법철학, 정치철학)	함 형 석	인도·불교철학
김 상 봉	형이상학	이 원 석	중국 신유학